

5·18 계엄군 최초 발포·코브라 헬기 사격 진실 밝혀지나

국정원 5·18 자료 추가 공개

계엄군 이미 차륜형 장갑차 운용

시민군 장갑차 탈취 무관하게

코브라 헬기 투입 정황 힘 실려

자료 절끔 공개 불만 목소리도

국가정보원이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관련 자료를 다시 공개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이 바뀌기 달린 차륜형 장갑차를 계엄군이 운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의 이번 자료공개를 두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정원 자료가 잊혀질 때마다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가정보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22건, 1242쪽의 기록물 및 사진 204장을 찾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추가 제공했다.

이번에 국정원이 넘긴 자료 중 주목할 만한 자료는 계엄군이 바뀌기 달린 차륜형 장갑차(APC)를 타고 광주 시가지지를 돌고 있는 장면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에서 운용된 장갑차는 바뀌기 달린 차륜형 장갑차와 궤도형 장갑차 등 2종류였다. 그동안 '차륜형 장갑차는 시민군만이 운용했고 궤도형장갑차는 계엄군만이 운용했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이날 사진 공개로 '5·18 당시 첫 발포'로 보고 있는 광주교차로 차륜형 장갑차에

서 이뤄진 사격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 보고서(2007)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는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멈춰선 차륜형 장갑차를 공격했고,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경환 대위가 M-16 소총을 발포해 김영찬(당시 조대부고 3년)군이 유탄에 총상을 입었다고 돼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그러나 이날 발포를 부인했다.

이번 사진의 경우 계엄군이 당시 차륜형 장갑차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만큼 코브라 헬기가 시민군의 장갑차 탈취와 무관하게 투입됐다는 정황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APC 차륜형 장갑차는 무게 8.5t에 160마력의 엔진출력으로 최대 속도가 시속 100km까지 나오는 최신식 장갑차였다. 황영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은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5월21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코브라로 APC(장갑차),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는 등 무장헬기를 대기시켰고 사격명령을 내렸다. 김기석 부사령관은 이 명령을 메모해 남겨두고 1995년도에 검찰 수사 때 제출했다.

국정원의 자료 공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11일, 11월 4일과 2021년 2월 9일에 이어 네 번째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때만 해도 더 이상 공개할 자료가 없었던 국정원 입장과 달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원 측은 방대한 자료에 대해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5·18 키워드 지정에 대한 부분은 5·18진상조사위원회와 협의하며 검색을 해오기 때문에 자료공개가 추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검색만을 기다리기에 진상규명에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궐선거 결과 따라 대권가도 희비...속 타는 이낙연

당 판세 열세에 개인 지지율 하락 2곳 모두 패배면 리더십 치명타

4·7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아 재보선 전면에 나섰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점화된 정부-여당 심판론 등에 따라 여론 전체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개인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발표된 리서치앤리서치의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1.2%, 이재명 경기지사 25.7%, 이원장 9.3%였다. 또 2일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똑같이 23%를 기록한 반면 이원장은 7%로 지난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해 하락 폭은 4%포인트에 달했다.

당초 이원장 측은 재보선 승리를 통해 반동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여론조사상 여당이 열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패배가 현실화할 경우 선거를 진두지휘한 이원장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원장은 당 대표로 재임하며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결단했다는 점에서 '책임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로 이원장이 타격을 입으면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제3후보의 정치적 공간이 그만큼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대선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가운데 한 근데서라도 승리한다면 이원장이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여론 내 리더십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이낙연만의 대선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한편, 당내 진문진영과의 연대 등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자대결 구도를 확고히 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심판 여론이 크게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원장의 지휘 책임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원장 측 관계자는 "재보선 패배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낙연의 패배라기 보다는 여론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며 "이원장은 묵묵히 주어진 상황을 타개하면서 대권가도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광주·전남·북, 대구·경남·경북 국회의원 27명·지자체장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공동건의

광주지역 8명, 전남·북 3명, 대구 12명, 경남·북 2명 등 모두 27명의 국회의원과 영호남 해남 지자체장 등이 이들 지역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필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갑)·양향자(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이 같은 공동건의문을 오는 9일 정부에 전달한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곽상도(대구 중남구)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14명도 공동건의서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동건의문에는 광주·대구시, 담양·순천·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등 경유지 지자체장 10

명과 광주-대구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이 지역 시민단체 9명 등도 동참한다.

국회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으로 구축돼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압축성장이라는 성과 이면에 동서간 교통인프라의 부족이 지역간 경제 불균형, 수도권 쏠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동서간 교류축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빛내륙철도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로 영랑권 인구 543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며,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광주와 대구의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광주NGO시민재단, 시민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구YMCA 등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한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 국회의원들이 고척 야구장에 총출동한 까닭은?

박영선 후보 지원 호남표심 모으기 '호남의 선택' 통해 막판 역전 노려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7재보궐선거 전날인 6일 서울 고척야구장에서 '호남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를 수소문하는 '지인찾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으며, 가장 든든한 우군인 '호남의 선택'을 통해 막판 역전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은 KIA타이거즈와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열리는

고척야구장 일대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총력 지원 유세를 한다. 이날 총력 지원 유세에는 이들 국회의원의 보좌진 등 의원실 관계자와 광주지역 일부 정치인 등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야구장 유세'에 나선 것은 최대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여당의 든든한 우군인 호남표를 결집하기 위해서다. 재보궐선거 막판, 호남 표심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재경광주전남항우회 최대규 회장은 "항우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할 방침이며,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프로야구와 정치는 미묘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야구장 방문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옛 '해태타이거즈'의 활약을 통해 호남인이 정치적으로 결집을 했고, 이 같은 향수를 자극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호남표심을 투표장으로 모으겠다는 것이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거리 지원 유세를 하면 미묘하게 표심이 변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으며, 호남인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서 "유권자의 실망이 여론조사에 일부 반영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면 박빙 승부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